

소공동체 소식

이 페이지는 각 구역이나 신심단체가 새로운 정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직접 꾸미는 '주보 사랑방'입니다

피스브릿지 구역

피스브릿지 구역 이야기 (피스카타웨이+우드브리지) 구역 이야기

피스브릿지 구역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남녀노소 두 구역을 다리처럼 이어 주님과과의 일치를 소망하는 가족들의 공동체입니다. 다음은 저희 구역의 특기입니다.
1) 협조를 잘합니다 2) 서로를 위한 배려를 잘 합니다 3) 칭찬을 잘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하고 싶고, 보고싶은 가족들입니다.

2021년 10월 24일 COVID-19 이후 첫 대면 구역모임 감사 - 같이 할 수 있는 소중함



2021년 11월 21일 새 가족 환영회 온층 - 새 식구를 보내주심



2022년 3월 19일 부활절 참회 예절과 판공성사 사순절 선물 - 은혜로운 준비



연중
제18주일

2022년
7월 31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목요일
(8:30AM~1:30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렘브란트. 1627년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코헬렛1,2; 2,21-23
- # 화답송 시편 90(89),3-4,5-6,12-13,14와 17(© 1)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3,1-5,9-11
- # 복음 환호송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 복음 루카 12,13-21
<네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이 되겠느냐?>
- # 성가번호 입당 27 봉헌 211 성체 177 파견 63

미사지향 (연미사)

- 최복자(레지나) - 가족
- 소형덕(베드로) - 가족
- 오옥순(수산나)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박병희 - 김 스텔라

미사지향 (생미사)

- 유병기(베네딕도) - 김진(다니엘), 김순희(다니엘라)
- 염은미(클라라) - 가족, 심윤조(이피제니아), 서경호(대건안드레아)
- 김순옥(올리아) - 황태진(필립보)
- 강해성(야고보) - 가족
- 신용철(다니엘) 가정 - 채희백(바오로), 채미영(테레사), 이대우(베드로) 가족, 나채국(제노)
- 정영철(프란치스코), 정길예(프란체스카) - 나채국(제노) 가족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미사 참여 122명).....\$1,165
- 감사헌금.....\$800

일명 (\$300)	익명 (\$500)
------------	------------
- 교무금.....\$2,140

김진(7-8)	양영길(7-8)	정진오(1-6)
박화성(7-12)	백원선(4-6)	한상철(8)
최두철(1-12)		

한빛 묵상

모든 탐욕을
거정하라여라



류상에 아네스 수녀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 염은미(클라라)

2022 Bishop's Annual Appeal

- 7/1까지 약정금액은 \$43,502 (목표금액의 124.3%, 135 가정 참여)입니다.
- 6월 22일 기준으로 2022년 Bishop's Annual Appeal \$35,000목표금액의 122.93% 를 달성하여 교구청으로부터 \$3,173.25을 리베이트 받았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차 헌금

- 8월 14일: 유틸리티

미사 시작 10분전부터 삼종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8월 매일미사책을 신청하신 분들은 성당입구에서 사무장에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비자 교리반 모집

- 2022년 7월부터 예비자 교리 교육이 시작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하계 기간 (7-8월) 사무실 업무시간 변경 안내

- 업무시간 : 오전08:30 - 오후13:30 (화-목)
- 업무시간 외 용무는 사무장 개인 연락처(732-258-5998)로 연락바랍니다.

기획분과 회의

- 일시 및 장소: 8월 7일(주일) 미사 후 성당 친교실

노스브런스윅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8월 7일(주일) 미사 후 성당 친교실

에디슨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8월 7일(주일) 미사 후 성당 친교실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8월 14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꼬미시움 주관 레지오 단원 일일 교육

- 일시 및 장소: 7월 31일(주일) 오후 2시-6시, 성당
- 강사: 미 동북부 레지오 교육 위원회 회장단
- 대상: 행동단원과 협조단원, 레지오를 통한 신앙 생활과 성모 신심에 관심 있으신 교우 분들

뉴욕/뉴저지 제6차 선택 주말 - NY/NJ Choice Weekend

- 일시: 2022년 9월 3일(토) 오전10시- 9월5일(월) 오후3시
- 참가대상: 1984-2000년생 청년 미혼 남녀(한국어권, 영어권)
- 장소: 뉴튼 수도원 St. Paul's Abbey Rt 206, Newton, NJ 07860
- 참가신청: www.choicenynj.com (7/15 - 7/31, 선착순30명)
- 참가문의: choicenynj@gmail.com
- 참가비: \$270 (\$50 non-refundable deposit)

선교지 청소년들에게 약기보내기 운동 2022 콘서트

- 미국 살레시오회 주관으로 선교지에 약기를 직접 보내거나 약기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는 선교지 청소년들에게 사랑의 빛을 밝혀주는 숭고한 애덕을 실천하고 주님의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2년 8월 13일 오후 6시
- 장소: 마리안 슈라인 이태석 신부 Hall
174 Filors Lane, Story Point, NY 10980
- 문의: 이상익 요한(201-341-4949)
구본주 미카엘(917-248-5977)

은혼식, 금혼식 축하 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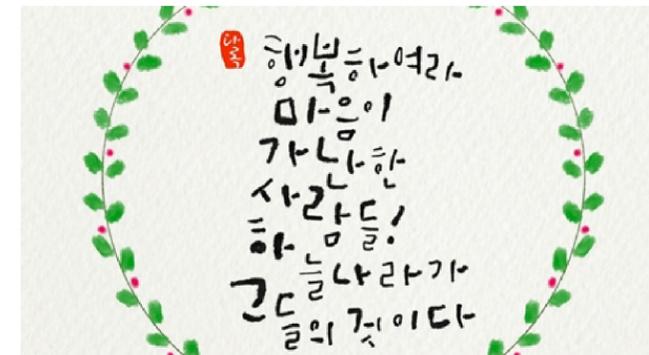
- 메타천 교구 체키오 주교님의 주례로 결혼 25주년, 50주년을 기념하는 혼인갱신식이 있습니다.
- 일시 : 2022년 10월 30일(주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St. Francis of Assisi 메타천 주교좌 성당

제 1독서 코헬렛 1,2; 2,21-23

허무로다, 허무! 코헬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애쓰고서는 애쓰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제 몫을 넘겨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또한 허무요 커다란 불행이다. 그렇다,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그 모든 노고와 노심으로 인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나날은 근심이요 그의 일은 걱정이며 밤에도 그의 마음은 쉴 줄을 모르니 이 또한 허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3,1-5,9-11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곧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 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인도 유대인도, 할례 받은 이도 할례 받지 않은 이도, 야만인도, 스키티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루카 복음 12,13-21

그때에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곳간들을 헐어 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기도를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면 들어주실까요? 기도는 반드시 지향을 두고 해야 할까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느님께 소원을 들어달라고 청하는 방법 중 가장 효험(?)이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시겠습니까? 어쩌면 어떤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소원 성취 확률이 높아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더욱 완벽한 기도를 찾아 헤맬 때가 있는 것은 아닐까 돌이켜 봅니다.

하지만 기도는 사실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하느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순수하고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라는 대화를 통해 하느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대화한다면, 더욱 자주 만나서 더 친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테니 좋겠지요? 주제를 정해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지향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모두 좋은 기도 방법입니다. 30일 피정을 통해 영신수련을 할때,기도 때 마다 분명한 지향 을 두고 청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기억나네요.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분명히 인식’ 하는 것이 매번 청해야 하는 지향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더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과 더 자주, 더 깊게 대화를 나누기 위한 목적이라면, 말씀해 주신 방법들은 참으로 추천할 만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청하는 바가 이루어질 확률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이겠지요? 동시에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대화이기에, 내이야기만 하는 것도 때로는 좋지만 사실은 상대방인 하느님의 이야기도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사실 말이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루카 12,20



비오르발명관투스